

## 협회소식

### 협회장동정



- 9월 27일 : 축산신문 창간 20주년 기념 축산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참석

- 9월 28일 : 2005 한국국제 축산박람회 평가회 참석

- 9월 29일 : 대의원 및 임직원 연수회 개최
- 10월 5일 : 삼수회 3분기 정기모임 참석
- 10월 6일 : 서울우유 거창공장 준공식 참석

및 거창육종연구회 회원들과 조찬

- 10월 11일 : 한우능력평가대회 협의회 개최
- 10월 12일 ~ 13일 : 2005한국홀스타인품평회 개최

회 개최

- 10월 21일 : 축산연구소 축산관련단체장 초청 간담회 참석

원의 화합과 친목도모 및 심신단련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대의원 및 임직원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분임토의를 통해 협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와 체육행사로 친목도모를 통한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05년 하반기 대의원 및 임직원 연수회 개최

본회에서는 지난 9월 29일 30일 양일간에 걸쳐 오산시 소재 롯데연수원에서 대의원 및 임직



## 업계소식

### 선진, 새 CI 및 중장기 경영 비전 선포



축산 식품 전문 기업인 ㈜선진(사장 이범권 /www.sj.co.kr)이 창립 32주년을 맞아 서울 잠실 호텔 롯데월드에서 이범권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대리점주,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CI(Corporate Identity) 발표 및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새로운 CI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기존의 CI가 앞으로 진행될 사업영역 확장과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이미지에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해 6개월간의 내부 임직원들의 합의를 거쳐 이번 창립기념일을 통해 발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보인 CI는 기존의 CI에서의 축산기업의 정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 생명을 상징하는 열정적인 레드컬러를 기본색상으로 하고 즐거움과 자연을 상징하는 오렌지와 그린칼라를 사용하여 리듬감 있게 표현했다. 또 한글로 나타낸 기존 CI 때문에 해외 진출시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는 의미로 영문 소문자 형태를 채택했으며, 고객과 더불어 함께하는 선진인의 모습을 'j'와 'i'위의 원형 점(dot)으로 나타냈다. 새 CI발표와 함께 진행된

비전 선포식의 골자는 주력사업인 사료 사업부분의 해외 비중 확대와 크린포크 및 육가공 사업의 체질 개선 등 사업영역 확장을 통해 2010년에는 올해 매출의 2배인 6700억, 2015년에는 1조 매출을 목표라고 한다. 또, 필리핀과 베트남, 중국 등 현재 진출해 있는 해외 거점을 기반으로 적어도 신규 거점 6곳 이상을 개척해 오는 2010년부터는 해외 시장에서 전체 매출의 20%를 거두는 글로벌 기업의 면모를 갖추게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애그리브랜드푸리나코리아, 이레식품과 유기배합사료 조인식

이레식품, 유기 배합사료 본격 생산 돌입 중국에서 유기 옥수수, 유기 대두, 유기 소맥 등 30여종의 유기 농산물을 생산, 전세계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유기사료도 생산 공급하고 있는(주)이레식품(대표이사 박 상오)이 이제 국내에서도 유기 배합사료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본격적인 유기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다. 중국산 수입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웰빙 바람으로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에 유기 배합사료를 본격 생산 함으로써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유기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이며 동물 복지를 감안한 사양관리 및 시설이 이루어져야 하고 유기 배합사료를 급이 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유기 배합사료의 확보가 어려워 유기 축산물 생산이 순탄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으나 유기 사료 원료 생산 회사인 (주)이레식품이 직접 유기 배합사료를 생산 함으로서 이제 안심하고 유기 축산물을 생산 할 수 있게 되었다. 완전한 자연 순환 유기 농업을 위해서는 유기 축산 또한 그 한 축을 담당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기축산은 그동안 경종농업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었다. 즉, 유기 축분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레식품은 경기도 화성시에 유기 배합사료 전용공장을 신축하였으며, (주)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와 전략적 사업 제휴를 함으로써 고품질의 유기 배합사료를 생산하게 되어 지난 9월 21일에 첫 유기 어린병아리사료를 출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유기 배합사료 공급에 들어갔다. 유기 산란계 배합사료로부터 출발하여 유기 육계 배합사료 및 유기 양돈 배합사료도 생산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전 축종의 유기배합사료를 공급하겠다는 큰 포부를 밝히고 있다.

### 천하제일사료 함안공장 HACCP 인증 획득

천하제일사료 함안공장이 지난 12일 정부로부터 HACCP 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HACCP 인증을 획득한

곳은 모두 16개 공장으로 늘어났다.

천하제일사료는 익산공장에 이어 이번엔 함안 공장도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사료도 식품처럼'이라는 천하제일의 이미지에 한층 걸맞게 됐다.

이처럼 배합사료업체들이 정부로부터 HACCP 인증을 속속 획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사료공장의 이런 추세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우성사료, 2005우성가족 체육대회 실시



주식회사 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지난 10월 2일 대전에 위치한 충남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2005 우성가족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2년 우성사료 창립 35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사내 체육행사로서 그동안 임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과 우성 가족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우성사료 뿐만 아니라 우성양행, 우성우수, 협력회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개 팀으로 나누어 열띤 응원전과 함께 다양하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Vision 111, Try Agai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베트남에 이은 중국진출을 통한 성공적인 세계화를 다지고 업계 정상화를 향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이번 행사는 대단히 뜻 깊게 마련되었으며 우성사료 특유의 전통과 저력을 보여준 행사로 우성사료는 38년 동안 오직 배합사료 분야 한 우물을 고집해온 배합사료 전문기업으로서 축산농가의 수익성과 생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한다는 사명감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사료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것임을 임직원 모두가 다짐하고 또한 최근 어려운 축산현실 속에서 늘 축산인과 기쁨과 고통을 나누는 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거듭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는 설명이다.

### 평창 '설목장' 한경 씨, 900ml 팩 5000원 판매

유기계란과 유기닭고기, 유기돈육에 이어 유기농 우유도 지난 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부터 품질인증을 받고 고부가가치 축산의 길을 넓히고 있다. 농관원 평창지소에 따르면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 한 경씨 목장 착유우 50두가 생산하는 1일 650ml의 우유 '설목장'에 대해 유기농우유 인증을 했다고 밝혔다.

설목장 우유는 900ml와 500ml 2가지를 서울 강남지역 풀무원 올가, 초록마을, 현대와 신세계 백화점, 생협 등에 공급되고 있는데 900ml팩 1개가 5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한 경 사장은 "지난 2000년부터 유기농우유 생산을 준비해 왔는

데 3년 간은 무농약 초지를 조성하고 2003년부터 착유우를 입식, 전환기를 거쳐 유기농 낙농목장으로 인증받았다"며 "막대한 넓이의 초지 확보와 수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유기농우유를 생산하게 됐는데 일반낙농가에 비해 약 2.5배 이상의 수익을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김포시, 내년부터 관내 축산농가 톱밥 공급

김포시(시장 김동식)가 내년부터 관내 축산농가에 톱밥을 공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식 시장은 지난 10월 20일 김포 조각공원에서 개최된 '제3회 김포시 축산인체육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시장은 "김포축협 등 축산단체 관계자들과 축분처리 대책을 논의했으나 예산문제로 시원한 해답은 찾지 못했다"고 전제, "그러나 적으나마 보탬이 되고자 내년도에 시예산으로 1억여원을 배정, 해당농가에 톱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과 이웅준 시의회의장을 비롯 임한호 김포축협장, 권오규 신김포농협장 등 김포시 정관계 및 축산계 인사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대회에서는 축구와 족구 등 식전행사이어 이어 축종별 우수조합원 시상,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축산인들의 화합을 도모했다.

### 평택, 유용 미생물 유산균 공급

평택시는 농산 부산물을 이용한 국내 부존자원의 가축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호밀, 옥수

수, 수단그라스 등 사일리지 품질개선과 농가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유용미생물인 유산균 제조공급으로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유산균은 곤포 사일리지내의 잡균발생 및 부패를 막고 적정산도를 유지해 사일리지의 장기보관으로 인한 영양 손실을 줄이며 가축의 소화기내에서 유해균의 활동을 억제해 면역기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병원성 대장균수를 감소시켜 축산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15일 축산지원사업소 개소와 함께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축산실천 및 축산물 품질향상을 위해 미생물 제조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담근 먹이 제조용 유산균 5000리터, 발효사료용 복합미생물 9000리터를 미생물을 제조해 축산농가에 공급했다.

시에서 제조 공급한 물량을 시중에서 구입해 축산농가가 이용할 경우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미생물 제조비용은 400만원 내외로 사업예산 절감과 축산농가 비용절감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금년도 공급한 미생물은 유통, 경과기간 없이 제조와 동시에 농가공급으로 미생물이 활력 있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 농림부 조직 확 바뀐다

농림부 조직이 확 바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월 17일 관계자에 따르면 농림부의 '국' 조직을 없애면서 대신 '본부장' 체제로 개편한다는 것.

이에 따라 '과'도 '팀장' 체제로 전환하고,

'계' 조직은 아예 폐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농림부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업방식으로서의 운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축산국' 명칭도 시대 상황에 맞게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낙농의무자조금 설치 첫 단추 끼워

낙농부문의 의무낙농자조활동자금 설치를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 농협중앙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0월 12일 축산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무낙농자조활동자금 설치를 위한 공동준비위원회를 열고 준비위원장에 이승호 낙육협 회장과 이정호 농협 상무를 공동선임하고 대의원 선거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국 69개 선거구에서 총 150명을 뽑는 대의원 선거 일정을 11월 30일로 확정짓고 10월 31일 대의원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 등록 및 기호결정 등의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선출구내 선거인이 60인 이하인 경우 우편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대의원 선출시 선출구의 유효투표가 미달할 경우에는 익일까지 투표를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동준비위원장에 이승호 회장 이정호 농협상무 선임되었다. 한편, 낙농부문의 의무활동자금 조성은 앞으로 12월 중의 대의원총회 개최를 비롯 관리위원회 구성과 사업계획 승인 등 연내 사업 시작을 위한 숨가쁜 일정에 돌입한다.

### 서울우유, 23만명 규모 가창공장 준공식

서울우유는 10월 6일 경남 거창지역 3만 1천여평 규모의 부지에 1천억원을 투입해 지은 신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홍수 농림부 장관을 비롯해 김태호 경남도지사, 김재술 서울우유조합장 등 900여명이 참가했다. 거창 신공장은 하루 평균 우유팩(200ml) 2백 50만 개에 해당하는 500t의 원유를 처리한다. 특히, 지난달 첫선을 보인 원유품질 최고 등급인 '1급 A' 백색시유 생산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우사랑 유통투명 환경 조성 감시단' 공식 출범

쇠고기 시장의 부정·둔갑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된 '한우사랑 유통투명 환경조성 감시단'이 지난 18일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호경·한우협회장)는 이날 농협서울지역본부에서 전국에서 소집된 유통 감시원과 보조요원, 축산업계 단체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사랑 유통투명 환경조성 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유통감시원들은 감시활동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는 결의문을 함께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감시단은 결의문을 통해 부정유통행위 적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고품질 한우고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음식접식육원

산지표시제의 도입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했다.

### 울산시 봉계 한우불고기 축제 성료



'자연과 하나 되는 맛의 향연'을 주제로 '2005 봉계 한우불고기 축제'가 지난 14일부터 3일간 봉계한우불고기단지 내 고수부지 일원에서 연인원 8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울산시·울주군 주최, 봉계한우불고기축제 추진위원회(회장 김성환)가 주관으로 제5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봉계한우의 우수성과 참맛을 알리고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전통 향토 음식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쾌적한 환경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1천평에 달하는 대형 천막으로 만들어진 먹거리 광장을 연출,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이번 축제는 소의 영혼을 기리는 천도제를 시작으로 군민가요제, 한우 청년선발대회, 중국기에단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행사 마지막 날 마련된 쇠고기 요리 경연 대회에는 부산·경남지역 30여명의 특급호텔 요리사와 대학교 조리과 학생 등 각 분야 최고 전문

요리사들이 엄선된 한우를 사용해 요리 대결을 펼치면서 한우고기의 진가를 발휘해 주목받았다.

### 경주축산업협동조합장 이·취임식



경주축협은 지난 17일 경주시 보문단지내 한화콘도 대회의실에서 백상승 경주시장, 이정백 상주축협장, 우효열 대구축협장, 김광수 김천축협장 등 관내 조합장들과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 조합 임직원, 조합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제12대 조합장에 취임한 최삼호 조합장은 취임사를 통해 “협동조합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사업규모를 갖추기 위해 지도·경제사업 방향 등이 새롭게 모색돼야 한다”며 “안정된 수익기반 확보를 위해 신용·경제사업 규모를 확대하면서 단위농협과 확실히 차별되는 축산 전문조합으로 특색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최 조합장은 “특히 경주버섯한우 브랜드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축산인들의 중심이 되는 경주축협을 만들어 축산농가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겠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전이 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회 농해수위원회에 이상배 의원 선출



이상배 의원(한나라, 경북 상주)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5·31 지방선거에서 경북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김광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이상배 의원을 선출했다.

신임 이 위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경북도지사, 환경청장, 내부무차관, 총무처차관, 서울시장 등을 역임한 3선(15·16·17)의 원이다.

### 부여축협, 등록우시장 운영 인정적

#### 거래기반 확보

부여축협(조합장 박승균)이 가축시장 내에 송아지 등록우 시장을 운영하면서 송아지를 팔거나 구입하는 양축농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부여축협은 송아지 등록우 시장은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조합가축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며 지난 10일에도 조합사업장에서 생산한 등록우 송아지 15두와 농가에서 생산한 등록우 송아지 7두 등 22두가 거래됐다고 소개했다.

등록우 송아지 시장은 파는 농가는 높은 가격을 받고, 사는 농가는 우수한 자질의 등록우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갈수록 농가로부터 인

기를 모으고 있다는 평가이다

## DNA 이용한 육우 개량방법 · 활용방안 소개

소비자 신뢰 확보가 새로운 축산업계의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우생산이력제 도입 관련 국제심포지엄이 열려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영남대학교 부설 한우연구소(소장 여정수 · 영남대교수)가 주최한 '한우 생산이력제 및 DNA 마커 활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영남대학교 국제관 그랜드홀에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DNA를 이용한 육우의 개량방법과 활용방안에 대한 소개와 함께 특히, 한우 생산이력제의 도입에 있어 핵심적인 기술인 DNA판별 기술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여정수 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우리 농촌 경제에서 한우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 어느 품목 못지않은 높은 위치에 올라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고급육 생산이나 품종개량 분야에 대한 한우농가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하고 "다만 그에 비해 아직 한우쇠고기의 유통상황은 이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미래한우산업의 비전이 국제경쟁력 확보에 있다고 봤을 때 한우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업계, 학계, 정부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이 시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육우 주요 생산형질에 관한 DNA 마커의 개발 및 검증=제레미테일러 교수(미국 미주리대) ▲한우경제형질 관련 DNA 마

커 응용현황=정의룡 교수(상지대)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의 정책방향=석희진 과장(농림부) ▲RFID를 이용한 한우의 이력추적 시스템=손영근 이사((주)speed-chip)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져 행사에 참석한 1백여명의 업계관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 충주축협 한우목장 개장식

충주축협(조합장 박광수)은 지난 12일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에서 서춘식 충주시 축산과장, 김종훈 농협충북지역본부 축산팀장, 조합 임원과 조합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축협 한우목장 개장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광수 조합장은 "98년 노은면에서 축사 2백평을 임대해 78두로 생축사업을 시작한 이래 오늘 조합자체 생축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소개하고 "오늘 마련된 한우목장은 조합의 생축사업 개념에서 탈피, 조합원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조합장은 이어 "저는 수의학을 전공한 정통 축산인으로서 축산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며 "협동조합의 사업 중 신용사업 비중이 너무 높다는 여론이 있지만 충주축협은 신용과 경제사업의 균형 경영을 실현하면서 전국에서 귀감이 되는 자랑스런 조합"이라고 강조하고 조합원과 축산인들이 축협을 정점으로 단결해 지역 축산업 발전을 이끌어 가자고 당부했다.



## 해외소식

### 네덜란드, 중국에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 지원

네덜란드 젖소개량기관인 NRS가 중국 해난성의 주요유업체인 후아후우아뉴 그룹과 협력하여 해난성에 젖소 산유능력검정사업을 지원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번 협력체결로 앞으로 2년간 해난성내 1만두의 젖소는 NRS가 개발한 능력검정 프로그램(IRIS)를 활용하여 생산기록을 등록하게 되는데, 우유 샘플 채취 및 분석, 농가 교육등도 함께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네덜란드, 방목지 생산 우유가 건강에 더 좋다.

방목지에서 사육된 젖소에서 생산한 우유가 우사에서 사육된 젖소에 비해 건강에 더 좋은 우유를 많이 생산한다고 네덜란드 웨이지닝겐대학 연구진이 발표하였다. 이들은 방목지와 실내 우사에서 사육된 젖소 우유를 분석한 결과 인체에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방목지 생산 우유에서 45%인 반면 실내 사육젖소 우유에서는 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네덜란드 낙농가들은 뉴질랜드나 아일랜드산 우유와 경쟁하기 위해 가급적 젖소를 야외에 방목하여 신선한 목초가 충분히 채식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일본, 우유 소비감소 심각

일본에도 우유소비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중

양낙농회의가 최근 밝힌 판매실적에 따르면 8월 전국 지정 생유생산단체가 음용 우유용으로 판매한 생유(生乳)는 전년 동월(同月)에 비해 4.1% 줄어, 13개월 연속 전년을 밑돌면서 심각한 생유 수급완화 상황을 보이고 있다. 금년 4~8월의 누계 판매량도 전년에 비해 4.3% 감소하여 전국적인 소비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차(茶)음료 및 두유(豆乳) 등의 소비가 늘어난 탓으로 보여진다.

한편 생유생산은 순조로워 8월의 지정단체 수탁 유량은 전국에서 66만 3,773톤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음용 우유용 판매가 줄어든 만큼 유제품용 판매는 늘었다. 그 중에서도 버터 및 탈지분유 등 특정 유제품용 판매량은 전국 18만 658톤으로 전년대보다 3.6% 늘었다. 소비침체가 계속되면 수요가 적은 겨울철의 잉여분처리가 문제가 된다. 일본낙농유업협회(J밀크)는 10월 중순 전문위원회를 열어 잉여량을 예측하고, 하순부터는 전국규모의 잉여분 처리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 프랑스, 우유로 맥주 만들어

프랑스에서는 우유를 발효시켜 맥주로 만드는데 성공해서, 성황리에 팔리고 있다고 한다. 락티웰(Lactivel)이라고 부르는 이 맥주는 우유와 보리의 배합비가 각각 75%, 25%로 북부지방 브리타니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Kefir"라는 효모균으로 발효시킨 것이다. 이 맥주를 제조한 버넬씨는 1주일 만에 300병을 파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55살인 버넬씨는 AFP 기자에게 “처음에 우유를 이용해서 술을 만든다는 사업구상을 말했을 때 모두들 놀랐다. 우유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서 침체된 낙농업계가 앞으로 이 사업으로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다.

“Kefir”가 효소 함유량이 풍부하고, 장을 활성화시키는 미생물도 다량 포함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2003년부터 맥주 발효 방식에 근거하여 우유 발효법을 다양하게 연구해왔다. 알코올 농도가 2%인 락티웰 맥주는 브리타니에서 가장 창의적인 제품으로 뽑혔으며, 현재 버넬씨는 맥주를 만들고 난 후 남는 우유 단백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 ‘브라질 구제역...5개국 수입중단조치’

브라질 중부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러시아 등 5개국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브라질산 육류의 최대 수입국인 러시아 정부는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모든 육류와 가공식품에 대해 당분간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파라과이 정부도 해당지역의 모든 육류 수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과 이스라엘, 남아공 등도 브라질 농업부에 육류 수입 중단 방침을 전해왔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브라질 정부는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중부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모두 5백 8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제역 발생 지역이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천 980만 마리의 소를 사육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쇠고기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방역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지난해 전 세계 150여 개국에 60억 달러 어치의 쇠고기를 수출했으며 올해는 8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